

한국의 근대화와 기독교 :

“성인들의 혁명”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테제의 한국적 적용

유 종 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중세와 근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서 흔히 지적되는 것이 시민계급과 시민사회의 등장이다. 16-7 세기 유럽에서는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기를 거치면서 적극적 정치참여의 의지와 새로운 정치사상으로 무장한 새로운 사회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후일 ‘시민계급’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 새로운 사회집단의 등장은 ‘근대화’라고 하는 역사적 대전환의 서막과도 같은 것이었다.

이 새로운 사회집단은 어떻게 역사의 장에 출현하게 되었는가? 이들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 그러나 많은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증거로 삼는 설명의 틀은 마이클 월저 Michael Walzer 에 의해 제시된 것이다. 월저는 그의 주저 성인들의 혁명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에서, 종교개혁의 결과 유럽에는 ‘죄’에서 해방된 다수의 사람들, 곧 ‘성인들’이 등장했고, 이들이 일으킨 ‘성인들의 혁명’이 중세의 사회정치적 질서를 결정적으로 붕괴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성인들’은 곧 이어 역사의 장에 등장하게 되는 ‘시민들’의 직접적 조상이자 원형이며, ‘성인들의 혁명’은 프랑스 혁명으로 상징되는 근대 시민혁명의 서막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근대화의 결정적 사건이다. 또한 ‘성인들의 혁명’이 종교개혁에 의한 중세적 죄의식의 타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중세적 죄의식의 타파야말로 세계가 근대로 넘어가기 위한 일차적인 사회적 조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월저의 이러한 주장을 일단 타당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주장이 18-9 세기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되어 온 기독교 운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구하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세 한국에서 사회적 죄의식의 형태와 이의 사회정치적 함의, 그리고 18 세기 말 시작된 한국에서의 기독교 운동이 이러한 중세적 유산의 타파에 어떤 역할과 기여를 했는지를 유럽 종교개혁과의 비교하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근대화, 그리고 이에 대한 기독교의 공헌이 흔히 근대적 제도과 문물의 도입이라는 차원에서만 이해되어온 경향에 비추어 본 연구는 기독교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과 한계, 나아가 전반적인 한국 근대화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쟁점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 죄와 사회? 기독교와 유교의 비교

크리스토퍼 힐 Christopher Hill 이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바처럼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죄’는 개인적 영혼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중대한 사회정치적 문제였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 정치사상의 전통에서 원죄 the Fall 는 국가와 법의 본질에 관한 논의의 중심에 있으면서, 동시에 사유재산, 권위적 통치체제, 그리고 여성의 종속을 포함하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질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다. 이의 표현양식과 사상체계는 그야말로 다양했지만, 단적인 예로 종교개혁 시기 영국에서 널리 회자된 ‘불복종과 반란을 경고하는 설교’ *An Homily against Disobedience and Wilful Rebellion*(1570)를 보면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세상이 혼돈이 있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신이 ‘관원과 지배자들을 세우고 이들에게 기쁨을 부었다’고 하였다. 국가 또한 같은 목적을 위해 신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만약 국가가 없다면 세상에는 온갖 협잡과 무자비한 파괴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와 관원과 지배자는 인간의 죄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신의 처방이다. 동시에 이들이 모두 신에 의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곧 신의 엄숙한 명령이며, 반대로 이들에 대한 불순종은 곧 신에 대한 불순종이고 신에 대한 또 하나의 반란이다.

이처럼 신의 직접적 명령에 의해 도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럽 중세의 세속적 권위와 권력은 사회에 넓게 퍼진 죄의식에 의해 쉽게 피치자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죄의식과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수동적이며 복종에 적합한 심성을 만들어낸다. 특히 중세 유럽인들 사이에 보편화된 기독교적 사고에서 볼 때 압제를 비롯한 현세의 고통은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참아 내는 것은 죄를 범한 인간의 신에 대한 당연한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었다.

물론 기독교는 죄와 심판 뿐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에 대한 신의 보상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이후 중세 카톨릭 사상의 전통에서 볼 때, 신의 구원은 현세적이 아니라 내세적이다. 구원받은 자는 내세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겠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다른 모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이 내린 징벌을 인내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내는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이는 더욱 절실한 신앙적 요구로 다가오게 된다. 나아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 선택받은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라는 기독교 고유의 이분법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자, 소수의 지배층과 다수의 피지배층이라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무의식적으로 당연한 것처럼 여기도록 한다.

이처럼 중세 유럽에서 죄는 위계적 권위체계와 사회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중세 한국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비록 기독교의 경우처럼 핵심적이고 드러난 문제는 아니었을지라도 중세 한국인들의 종교와 사회적 삶의 근저에는 뿌리깊은 죄의식이 자리잡고 있었고, 한국 중세의 위계적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는 많은 부분 이러한 사회적 죄의식의 기반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죄의식은 한국적 정신세계의 근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 단적인 증거로, ‘죄’, ‘업보’, ‘팔자’, ‘운수’, ‘분수’, ‘한’ 등, 죄와 이와 관련된 어휘들이 아직도 한국인들의 언어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러한 어휘들이 한국인들이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민중화된 불교에서 유래한 업보(또는 과보)의 사상은 하층민, 여성 등 한국 사회의 전통적 소외집단에서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다. 가장 거친 의미로 이해할 때 업보란 윤회의 작동원리이다. 곧 전생의 행위가 상과 벌로써 다음 세상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삶은 전생의 업보이고 현세의 업보는 다음 세상으로 이어진다. 중생은 이 업보의 고리를 통해 끝없이 윤회한다.

이러한 업보와 윤회의 사상은 자연히 현재적 삶에 대한宿命론과 비관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의 (불행한) 삶은 전생에 저지른 죄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세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도 이 업보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현세에서 선한 업을 쌓아 내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불행은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업보를 인고하는 것이야말로 내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면에서 업보 사상은 기독교의 원죄와 구원의 교리와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유사성이 한국에서 기독교가 융성하게 된 한 가지 원인일 것이다.)

이러한 업보와 윤회의 사상이 한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은 근세 한국인, 특히 민중의 언어와 정신세계를 탁월한 문체로 표현하고 있는 최명희의 기념비적 소설 ‘혼불’을 통해 그 모습을 뚜렷히 볼 수가 있다. 이 소설에서 ‘거명굴’에 사는 하층 천민들,

그리고 양반이지만 또다른 의미에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청암마님'조차도 자신들의 불행을 끊임없이 전생의 업보로 돌리며, 극한상황에서도 이를 참고 또 참아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이야기한다.

업보, 윤회의 사상과 함께 한국 민중들의 언어와 생각을 지배해온 또다른 요소는 소위 '팔자'와 '운수'의 숙명론이다. (이 또한 '혼불'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업보의 사상과 달리 비록 '죄의식'의 기반 위에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팔자'와 '운수'로 표현되는 숙명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태도는 업보와 윤회의 생각이 만들어낸 정신세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한국인들의 '죄의식'은 민중과 그들의 종교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선의 지배계층이었던 유학자들 또한 종류와 정도는 달랐다 해도 죄의식의 포로였다. 유학자들의 죄의식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일종의 도덕적 자괴감이었다.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학문이나 율법으로써 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의 헛됨과 이것이 가져다 주는 좌절감'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진지하고 양심적인 유학자들에 있어 이러한 도덕적 자책감과 좌절감은 그들의 학문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고, 다산 등 한국 천주교회를 세운 몇몇 유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자성리학의 전면적 부정이라는 혁명적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한국인들의 정신세계에 넓고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동시에 이는 개인의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였다. 서양과 달리 동양이나 한국의 정치사상적 전통에서 사회정치적 질서와 제도가 직접적으로 죄의 문제와 연관되어 논의되는 일은 드물다. 권위적 왕조체제, 삼강오륜의 사회규범, 차별적 신분제 등 동양과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위계적 사회질서는 그것이 보편적인 우주의 원리에 합치되고 어떤 의미에서 이의 표상이라고 하는 사실에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질서 안에서 각 개인과 집단이 차지하는 지위,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죄가 중대한 문제로 개입된다. 군주는 오직 성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그 지위에 오를 수 있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의 성화 - 또는 그 가능성 - 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질서는 특히 피치자 집단이 자신들의 불리한 지위와 자신들이 받는 불리한 대우에 대해 동의하고, 복종에 적합한 심성과 태도를 견지하지 않으면 견고히 유지될 수 없다. 중세한국에서 피치자 집단의 이러한 동의와 태도는 인과응보, 업보로 상징되는 죄의식과, 운수, 분수로 상징되는 숙명적 사고, 그리고 내세지향의 민중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양 및 한국 사회에서도 죄는 대단히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제도와 질서 자체가 죄의 원리로써 직접 정당화되지는 않았다 해도 죄는 특히 피치자 집단의 체제에 대한 복종과 순응의 태도를 끌어냄으로써 이 질서와 제도의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처럼 서양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세 한국에서도 사회적, 정치적 위계질서가 사회구성원들의 죄의식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다고 하면, 죄의식의 타파, 죄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중세적 질서가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월씨와 힐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에서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어떻게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언급하고, 그의 주장이 한국의 근대화 과정, 특히 18세기 이후 한국의 기독교 운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종교개혁과 성인들의 혁명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종교개혁의 본질을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라는 두 개의 구호가 그 사상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이 두 가지 핵심적 교리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것이 중세 카톨릭 교회의 권위와 정당성을 부인하는 주된 근거라고 하는데 일차적 의미가 있다. 행위(의식), 전승, 사제의 중재를 통해서만 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로마 교회에 대항하여 루터는 개인이 누구나 성서를 통해 신과 직접 교감할 수 있고, 의식과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토퍼 힐은 이를 ‘신의 민주화’ 또는 ‘구원의 민주화’라고 불렀는데, 종교개혁의 근본정신을 잘 요약한 한마디라고 생각한다.

종교개혁의 이러한 ‘민주화’는 신과 구원을 교회가 ‘독점’한 기반 위에서 유지되어온 중세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근본적 도전이었다. 비단 교회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연결된 정치적 권력, 사회적 권위, 그리고 이에 의해 유지되었던 모든 중세적 제도들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나아가 중세적 권위에 대한 이러한 도전과 부정은 급기야 어떤 종류의 세속적 권위도 부정하는 극단적 경향으로 치닫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일부 프로테스탄트들은 해방의 무기였던 성서와 그들의 후원자였던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권위까지도 부정하는 급진성을 보였다.

이러한 사태의 발전은 중세 교회와 국가에 뿐만 아니라 새로 탄생한 프로테스탄트 교회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후원자였던 신생 ‘신성군주들’ *godly princes* 에게도 매우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루터 등 종교개혁가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통제를 벗어나 종교개혁이 이처럼 위험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이를 억제하고 이의 급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성서에 근거를 두었다고는 하지만 루터는 세속적 권위가 신에서 비롯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은 이에 복종해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진다고 하는 다분히 중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칼빈은 성서의 권위적 해석을 옹호하고 예정론으로써 구원의 민주화를 제한했으며 중세보다 더욱 억압적인 신정정치를 표방했다.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반동적’ 시도는 그러나 한 번 굽이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이들이 내세운 종교개혁의 원리와 정치사상은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다. 무엇보다 루터와 칼빈의 반동은 해방의 길을 보여주고 이를 다시 막으려 하는 부질없는 시도에 불과했다. 해방을 갈구해 온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보수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결국 종교개혁의 여파로 유럽은 급진적 프로테스탄트들의 혁명적 열기에 휩싸이게 되었다. 불란서는 성서적 저항이론으로 무장한 위그노들과 구체제를 지키려는 카톨릭 교도들간의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영국은 무정부주의, 신정정치, 심지어 원시 공산사회까지를 지향하는 수많은 급진 프로테스탄트 집단들의 준동으로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1648년 크롬웰의 혁명과 이듬해 국왕 찰스 1세의 처형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마이클 월처는 영국에서의 이러한 프로테스탄트 혁명을 ‘성인들의 혁명’ *The Revolution of the Saints* 이라 부르고, 이를 영국의 중세와 근세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내세운다.

월처가 이를 ‘성인들의’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의 주역이 죄로부터 해방된 개인들, 곧 ‘성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이 몰고 온 일차적 결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중세적 죄의식의 타파, 죄와 죄의식으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이었다. 죄에서 해방된 인간은 당연히 죄의 속박, 곧 정치적 억압과 사회적 불평등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잃어버렸던 인격적 가치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 질서의 구축을 위한 혁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힐은 17세기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영적 해방이 어떻게 정치적 해방의 혁명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이 시기 프로테스탄트들에게 구원의 영적 경험은 자유의 새 생명을 향한 돌파구였다. 등에 지고 있던 (죄의) 짐이 벗겨 나가면서 그들은 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자기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토마스 후커 Thomas Hooker 가 이를 잘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회개와 마음 속으로부터의 통회를 경험한 사람에게 세계는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물과 사람의 가치가 전혀 달라지고, 세상이 거꾸로 서며 모든 것이 본래의 모습대로 보이게 된다.’ … 이러한 자신감이 이 시기 칼빈주의와 칼빈교도들의 전형적 특징인 그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 냈다. 사람들은 이제야 자유를 느낄 수 있었다. 곧 지옥으로부터의 자유, 교회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세속적 권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 이 자유가 허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허상의 자유라 할지라도 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쟁취를 위한 힘을 주었다.

월씨의 주장에 따르면 시민적 자유와 평등은 종교개혁 시기 출현한 ‘성인들’이 지녔던 해방의 기쁨과 권리의식, 인격적 자긍심의 직접적인 정신적 유산이고, ‘성인들의 혁명’은 근대 시민혁명의 서막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인들’을 탄생시킨 죄로부터의 해방이야말로 세계의 근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신적 조건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한국에서의 기독교 운동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것이 다음에서 필자가 논의하고자 하는 바이다.

3. 한국 기독교 운동과 ‘성인들의 혁명’

한국에서 기독교 운동은 천주교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천주교는 17세기 초엽 중국을 통해 처음 전래되었으나, 본격적인 신앙운동으로 발전한 것은 1784년의 일이다. 이후 한국 천주교회는 짧은 기간에 수십만의 신도를 거느리는 놀라운 교세의 확장을 이루었지만, 끊임없는 박해로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다.

규모나 사회적 충격으로 볼 때 천주교 운동은 19세기 조선의 가장 중요한 대중적 사회운동의 하나였다. 어떤 면에서 이는 서양의 종교개혁 운동과 비견될 수 있는 것이었다. 서양에서 종교개혁의 ‘개혁’대상이 바로 천주교였기 때문에 이는 좀 이상한 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천주교 운동은, 서양의 종교개혁이 그러했듯이, 중세의 종교(들)에 대한 전면적 부정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불교, 도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조선의 국가종교였던 유교(주자학)도 예외가 아니었다. 중세에서 종교는 그저 종교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모든 중세적 질서와 제도, 가치들을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에서 천주교 운동은 단순한 종교운동을 넘어서서 전면적인 사회정치적 개혁-또는 혁명-운동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점에서 서양에서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위에서 주장했듯이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을 죄와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의 천주교 종교개혁도 이와 비교될만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월씨와 힐의 주장대로 근대화의 정신적 요체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한국의 근대화에 천주교가 어떤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는지의 여부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천주교는 불교를 비롯한 한국 중세의 모든 종교들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에 벌에 관한 이들 종교의 교리와 원리들도 거부하였다.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 윤회, 사후의 심판,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움으로써 성불한다고 하는 구원의 원리 등을 모두 ‘이치에 합당치 않는다’는 이유로 배격하였다. 대신 인류가 ‘원조’ 아담과 에와의 범죄로 일생의 괴로움과 더불어 ‘사후의 무궁한 괴로움’의 벌을 받다가 강생한 천주 예수의 ‘죄를 구하시고 속하시는’ 은총에 힘입어 죄와 벌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을 얻게 되었고, 금생에

행한 바를 따라 사후에 심판을 받고 각각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고 하는 기독교적 죄와 구원의 원리를 내세웠다.

천주교의 이 새로운 원리가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가?

천주교가 남인계 유학자들, 중인계급, 여성 등 당시 사회적 소외집단과 불만집단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천주교를 받아들여지게 된 동기는 이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유학자들의 경우에는 천주교가 지향하는 반주자학적 성격과 새로운 학문으로서의 대안이라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물론 이는 단순히 학문이나 추상적 진리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오랫동안 국가적 학문으로 숭상되어온 주자학을 부정하는 것은 이의 기초 위에서 있는 조선의 권력구조, 사회질서, 가치, 제도 등 체제에 대한 전반적 부정을 뜻하였으며, 천주교를 받아들인 유학자들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에 비해 일반 백성, 여성, 천민 등 사회의 하층계급에 속하였던 사람들에게는 천주교의 ‘신 앞의 평등’이라는 원리가 가장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다.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에게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는 기독교적 인간평등 사상이 그다지 강조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천주실의는 삼강오륜으로 상징되는 유교사회의 위계적 질서를 힘껏 옹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천주교인들이 천주교에서 인간평등의 사상을 읽어내고 있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 이유야 어떻든 초기 신자들의 천주교 이해에는 신 앞에서는 “일꾼이나 벼슬아치, 가난한 이와 부자 ... 양반이나 상놈이 모두 다 평등하다”고 하는 생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간평등의 메시지는 천주교가 처음부터 사회적 소외집단에서 지지기반을 넓혀가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고, 이들이 교회의 주축세력이 되면서 이는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평등의 사상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에게는 놀라운 영감과 저항의 원천이다. 많은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이 박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천주교에서 발견한 새로운 인간평등의 사상, 그리고 이것이 심어준 인격적 존엄성, 자신감, 용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평민 출신으로 초기 순교자의 한 사람인 이도기(바오로)는 법정에서 재판관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저는 무식한 탓으로 선비들의 몫으로만 되어 있는 공자와 맹자의 도는 알지 못합니다. ... 그러나 천주교는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 대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천주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지금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그분입니다. 창조 후에 부부와 가족이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 공자, 맹자, 임금과 신하 등은 천지 창조 후에 생긴 것입니다. ...”

이도기가 어떤 의미와 의도로 이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부부, 임금과 신하, 성인과 범인의 구별을 절대 폐할 수 없는 우주의 원리로 보는 유교적 가르침과 이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 한 사람의 평민 순교자 박취득(라우렌시오) 또한 자신을 취조 설득하려는 관장을 향해 “이것을 잘 알아 주십시오. 세상이 마칠 때 모든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는 양반과 서민, 임금과 백성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 천주 성자 앞에 모일 것이고, 그 분은 ...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라고 “힘있게” 말했다. 비록 앞으로의 일을 말하고 있지만 박취득의 이러한 발언에 녹아 있는 평등에의 외침과 불평등에 대한 저항의식을 우리는 분명히 읽어낼 수가 있다. 초기 한국 천주교회사에는 이들과 같은 평민, 여성, 천민 순교자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을 월저의 ‘성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행동과 발언에서 보여지는 자신감, 죽음 앞에서의 용기, 진리에의 확신, 인간평등의 믿음, 맹렬한 저항의식 등, 이들에게서는 분명히

이전의 소심하고 절망하는 죄인이 아닌, 죄에서 해방된 성인의 모습이 엿보인다. 이 점에서 월찌가 말하는 성인들과 이들은 공통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한국의 '성인들'과 종교개혁 시대 서양의 '성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서양의 '성인들'과 달리 한국의 '성인들'에게는 현실개혁 또는 '혁명'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천주교는 저항의 이데올로기였던 것은 분명하지만 개혁과 혁명의 이데올로기는 아니었다. 천주교가 주로 당시 사회질서와 제도에 불만을 가졌던 계층 사이에 퍼져나갔던 이유는 천주교가 이들에게 사회적 비판과 저항의 강력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불만스러운 현실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혁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천주교가 이들에게 어떠한 동기나 영감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가 단기간에 놀라운 교세의 확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기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서양의 청교도 혁명, 수평파 운동 The Levellers' Movement, 퍼트니 논쟁 The Putney Debate 과 비견할만한 그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성인들'은 나타났지만 이들에 의한 '혁명'은 없었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서는 서양과는 다른 유형의 성인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서양 종교개혁과 한국 천주교 종교개혁의 결정적 차이점이라고 보여진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월찌나 힐이 지적한 바 영국에서 '성인들의 혁명'이 가능했던 사회적 조건, 예를 들어 수많은 '주인없는' 해방농노들 masterless men 의 발생, 신흥 소자본가 계층의 등장 같은 사회적 변화가 당시 조선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 서양과 달리 중세의 정치권력, 사회질서, 종교가 당시 조선에서는 아직도 견고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수동적 저항 외에 한국 천주교인들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의 대안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천주교가 중세의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유산, 특히 죄의식의 완전한 타파를 이루지 못했고, 이것이 조선 천주교인들의 '혁명'적 의지의 결여와 어떤 식으로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필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이 중세 종교, 특히 불교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선 당시 이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삶을 '고해'에 비유하고 이를 어떤 죄의 결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죄의 결과 이 땅에 고통이 있게 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이지만, 한국 천주교인들이 가졌던 이러한 세계관에는 천주교 못지 않게 전통적인 불교의 영향도 있었던 듯 하고, 더구나 '고해' '풍진세상'같은 전형적인 불교의 용어들이 여전히 사용되면서 이들의 정신세계는 더욱 불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곧 이 고해의 세상은 숙명적인 것이며, 그 안에서 진정한 구원이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죽음을 통해 이를 벗어나야만 삶의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현세적 삶에 대한 이러한 비관적이고 숙명적인 태도는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의 '순교'의 열정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순교의 열정은 초기 한국 천주교회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데, 때로는 스스로 관가에 자수하여 죽여주기를 호소한다든지, 방면을 거부하면서까지 순교의 길을 택한 신자들도 있었다. 물론 순교는 지고한 신앙심의 표현이고, 어떤 면에서 가장 강렬한 저항의 몸짓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으로 이는 현세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내세의 영원한 복락을 약속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초기 한국 천주교인들은 박해와 죽음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이자 동시에 오직 이를 통해서만 진정한 죄사함을 입고 내세의 영복을 약속받는 것으로 확신했다. 용기, 환희와 더불어 깊은 죄의식이 순교자들의 정신상태를 지배하고 있었음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아무튼 천주교인들은 순교를 현세의 고통을 벗어나 내세의 행복으로 들어가는 길로 믿었고, 특히 이 '고해의 세상'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이 이들이 순교의 열정을 품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의 순교는 '혁명가의 죽음'은 아니다. 혁명가의 죽음은 그 외침이 이 세상을 향하는데 비해 이들의 죽음은 내세를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내세지향성'은 비단 순교자들만이 아니라 초기 한국 천주교도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신앙적 기조였다. 이것 역시 서양의 성인들과 한국의 성인들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이다. 서양의 성인들은 '내세와 심판의 교리'를 '사람들이 낳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빈자와 피치자들의 순종을 끌어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배격했던 것이다. '왜 부자들만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내세에서도 잘 살아야 하는가? 내세 뿐 아니라 현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이들의 외침은, '현세의 고통은 죄에 대한 벌'이라고 하는 죄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성인들의 외침이었다. 그렇다고 하면 현세의 행복을 포기하고 내세의 행복을 지향한 한국 천주교인들은 이런 점에서 여전히 '불완전한 성인'이고 여전히 '죄인들'이었다.

한국 천주교의 이러한 내세지향적 경향은 신유박해(1801년)를 전환점으로 교회의 중심세력이 양반들로부터 상민, 여성, 천민 계층으로 옮겨 가면서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더욱이 천주교가 이러한 "우민의 무리"의 종교가 되면서 일부 신도들은 그들의 신앙에서 일종의 주술적 효험을 기대하거나, "불교도들이 나무아미타불의 염송을 하듯 십계나 삼종경을 암송함으로써 현세에서의 고통의 극복이나 내세의 보상을 기원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렇게 기복적인 전통종교의 모습으로 상당부분 돌아가면서 천주교는 초기에 가졌던 현실비판과 저항의 활력을 잃어버렸고, 19세기 전반기 조선의 가장 커다란 사회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근대화에 별다른 공헌을? 적어도 정신적인 면에 있어? 하지 못하고 말았다.

천주교의 이 같은 '실패'의 요인을 혹자는 천주교 자체의 속성에서 찾고자 할지도 모른다. 천주교는 어쨌든 중세의 종교이고, 더구나 동양에 전파된 천주교의 교리는 소위 '보유론'의 입장에서 삼강오륜으로 상징되는 유교사회의 위계적 질서를 옹호했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개신교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개국 이후의 일이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두 명의 미국인 선교사가 입국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로부터 불과 20년 만에 한국 개신교회는 수십만의 개종자 수를 자랑하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천주교와 달리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개신교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한국 최초의 근대적 병원과 학교들이 선교사들에 의해 설립 운영되기 시작했다.

다른 한 편으로, 개신교는 근대적 자유민권 사상을 도입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사상적으로도 한국 근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김옥균, 윤치호, 유길준, 서재필 등 서구문물의 도입을 주장한 한말 개화파의 주요 인사들이 개신교회와 직간접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들에서는 민주주의의 원리와 제도가 설교와 교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개신교도들이 중심이 된 한말의 독립협회는 자유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시민운동으로 평가된다. 협회가 주동한 대중집회와 신문(독립신문)은 서구적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사람들 사이에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독립신문 외에 1890년대 후반부터 발행된 개신교의 각종 신문과 유인물들도 서구 자유주의 사상 전파의 중요한 매체였다.

독립협회의 활동을 계기로 1895년부터 대략 1905년까지의 약 10년은 ‘한국 개신교회의 퍼트니 논쟁 시대’라고 불릴만한 중요한 시기이다. 비록 주로 교회 내부에 국한된 것이기는 했지만, 복음의 사회적 의미, 사회와 정치의 개혁, 제도의 혁파, 그리고 개혁과 반외세 정치운동에의 교회의 참여 여부에 대한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17세기 영국 시민전쟁에서 퍼트니 논쟁의 결집된 힘이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으로 이어졌던 것과는 달리, ‘한국의 퍼트니’ 논쟁은 교회의 심각한 분열의 결과만을 낳았다. 특히 당시 조선의 급박한 문제였던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운동을 비롯한 반외세투쟁에 교회가 동참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이를 주장하는 ‘애국적’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순수복음’만을 지향해야 한다고 하는 선교사들 사이에 맹렬한 논쟁과 반목이 있게 되었다. 결국 많은 애국적 인사들은 선교사들과 그들이 주도하는 교회의 태도에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선교사들의 주도 하에 교회는 순수복음주의의 노선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이는 1908년의 대각성운동(소위 ‘100만 구령운동’)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1900년대 초 한국 개신교회의 이 같은 순수복음주의적 대전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과 평가가 계속되고 있고 - 특히 일본의 한국 병합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교회가 무기력한 순응으로 일관한데 대하여 -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논의와 평가를 더하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목적은 아니다. 필자의 관심은 한국에서 그러한 복음주의가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 그리고 이것이 본 연구의 중심적 논의주제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의 개신교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출신 선교사들에 의해 전래되었고, 이들의 신앙과 신학은 아직까지도 한국 개신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흔히 복음주의 Evangelicalism 라고 불리는 이들의 신앙과 신학은 1730년대 북미 대륙을 휩쓴 소위 대각성 운동 The Great Awakening 의 정신적 유산 위에 서 있었는데, 청교도적 엄격성,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확신, 죄의 심각성에 대한 강조, 죄의 깨달음, 회개, 거듭남의 개인적 체험의 중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믿음 등을 그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현실문제, 특히 정치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무관심 내지 순응주의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신앙을 개인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보는 데서 오는 자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선교사들의 이러한 신앙적 특성에 따라 한국에서 개신교는, 신의 존재와 주권에 대한 이성적 이해를 중시한 천주교에 비해, 다분히 인간의 감성과 죄의식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초기 개신교회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소위 ‘부흥집회’인데, 여기에서는 언제나 죄의 고백, 회개, 구원의 체험에 대한 간증의 시간이 있었고, 감동적인 간증은 으레 모인 사람 모두의 죄의 고백, 회개, 그리고 구원의 체험으로 이어졌다.

아무튼 부흥회는 매우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었다. 특히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 교회들을 휩쓴 ‘대각성운동’은 정치참여 문제에서 비롯된 분열과 침체의 위기에서 교회를 구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동시에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 복음주의가 한국 개신교회의 정통신앙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한국에서 이처럼 개신교의 복음주의가 성공을 거두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체험중시의 복음주의적 신앙이 “한국인들의 종교심성”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래와 춤으로써 고조된 부흥회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개신교 신앙의 핵심인 죄의 깨달음-고백-구원의 체험에 대한 강조가 한국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적 심성에 특히 강한 호소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고백, 노래, 설교 등을 통해 살펴 본 이들의 신앙은 압도적으로 죄의 깨달음, 회개, 구원의 기쁨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죄의 심각성과 이의 결과에 대해 한국 개신교도들의 이해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현세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신에게 저지른 죄악의 결과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겪는 ‘곤고한 일들’, 곧 “먹기 위해 땀흘려 수고하고 그러면서도 종신토록 평안함이 없는” 그러한 것 뿐 아니라, 개인적 불행, 심지어 민족과 국가의 불행조차도 “우리나라 사람이 사신우상을 숭배하고 악독한 일만 행한” 결과로 보았다. 그러므로 이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다 천국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일본인들을 미워한 죄’도 포함되었다.

초기 한국 개신교도들의 마음에 자리잡았던 이러한 깊은 죄의식은 한국인들의 전통적 종교심성에 - 최소한 일부나마 - 그 뿌리가 닿아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감정의 강도만이 아니라 죄와 세계의 관계, 구원의 지향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그렇다. 곧 이들의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인 현실비관론과 내세지향성을 말한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분명 죄의 심각성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서양의 ‘성인들’에 있어 죄의 고백 그리고 구원의 결과가 현재를 향하고 있었던 데 비해,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성인들’에 있어서는 그 결과가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 그리고 내세로의 도피라는 신앙적 태도로 나타났다. 이는 다분히 중세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에 관한 종교적 사고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 개신교의 ‘종교개혁’ 또한 천주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세적 죄의식의 타파라는 근대적 과업의 수행에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다. 오히려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자리잡은 죄의식을 확대재생산하고 이의 바탕 위에서 교회의 성장을 이룩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 개신교는 진정한 성인들을 낳지 못했고, 당연히 ‘성인들의 혁명’도 일어나지 않았다. 개국 이후 벌어진 정치적 불안정과 외세침략의 와중에서 개신교회가 보여 준 무기력과 현실도피의 태도는 이러한 한국 종교개혁의 한계와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에서의 기독교 운동과 서양의 종교개혁을 비교하여, 서양에서와 달리 한국의 종교개혁은 중세적 죄의식을 타파하지 못했고, 죄에서 해방된 ‘성인들’을 낳지 못했음을 논하였다. 성인들이 없다면 당연히 이들에 의한 ‘혁명’도 있을 수가 없다. 월찌의 주장대로 중세적 죄의식의 타파, ‘성인들’의 탄생, 그리고 ‘성인들의 혁명’을 거쳐 세계가 근대의 문을 들어서게 되었다고 하면, 그리고 종교개혁이 서양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면, 한국에서의 기독교 운동은 적어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담당했던 근대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운동의 이 같은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죄로부터의 구원의 원리’가 기독교의 핵심적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한국인들을 ‘원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검증하기 어려운 가설이기는 하지만,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죄의식이 그만큼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뿌리깊은 죄의식은 서양 중세의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왜 서양의 종교개혁은 이를 타파하고 극복할 수 있었는데 비해 한국의 ‘종교개혁’은 이에 실패했는가? 여기 대해서는 다시 죄의식이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에 훨씬 더 깊이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기독교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의 뿌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에 양분을 주고 그 위에서 무성한 잎을 피웠다. 그렇게 본다면 ‘실패’라는 용어가 사실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된 행위를 전제하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줄리아 칭 Julia Ching 은 20 세기 공산주의 혁명이 있기까지 동양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혁명'이 없었던 사실에 주목하고, 이는 유교적 또는 동양적 정치사상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들의 혁명'에 대해서도 우리는 유사한 주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독교 운동의 이 같은 '실패'를 거론한다고 해서 한국의 근대화에 기독교가 한 공헌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언급한 교육이나 의료사업, 사회계몽운동, 1960년대 이후 교회가 주도한 민주화 운동 등이 한국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서구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도입도 기독교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자유주의자들 뿐 아니라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인들이었다.) 다만 그러한 근대적 사상이 기독교 교리의 일부로, 또는 그것에 체화되어 도입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부속물'로, 다시 말해 기독교라는 '종교'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세속적 이론'으로 전파 유통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월찌의 주장대로 서구에서 근대 시민정신이 종교개혁 시대 '성인들의 혁명'이 남긴 정신적 유산이라고 한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형성된 한국 사회의 근대 시민정신은 그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가 결여되어 있거나, 최소한 서구의 그것과는 종류가 다른 것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에서 근대의 사상적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벌써 '탈근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